빈곤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 분석

Analysing the Effect of Poverty on Children

김효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아동빈곤은 아동기가 신체, 정서, 인지 발달 등 모든 영역의 발달에서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성인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빈곤은 아동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빈곤한 아동은 비빈곤 아동에 비해 학업, 정서상의 문제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빈곤을 경험하는 시기가 어릴수록, 그 기간이 장기적일 수록 그 악영향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아동빈곤의 영향경로는 인적자본투자이론과 가족과정모델로 설명되며, 가정환경 내 자원의 부족과 가정의 역기능이 주요요인이다. 본고에서는 아동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기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접근과 빈곤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투자 및 부모의 심리 · 정서 지원을 과제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곤이 아동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 및 정부가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 서론

빈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동빈곤은 아동기가 신체, 정서, 인지 발달 등 모든 영역의 발달에 있어 결정적 시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빈곤과 같은 동일한 위험에서도 아동은 성인과는 다르게 영향을 받으며, 성인보다 훨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아동빈곤은 아동의 모든 영역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다른 아동기 위험 · 위기와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동기 어떤 위험보다 더욱 치명적이다. 빈곤이 아동기의 다른 위험들을 함께 동반한다는 것[1]은 결손가정의 높은 빈곤율, 빈곤과 방임의 높은 상관관계, 빈곤으로 인한 결식의 문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삶과 발달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빈곤의 영향을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에 초점을 맞추면

1) 빈곤과 다른 위험들과의 선 · 후 관계는 학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빈곤과 상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동반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빈곤아동의 현재의 삶이다. 즉, 비빈곤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빈곤아동의 현재 발달과 삶의 문제에 부정적인 면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아동이 성장한 성인이 되어서의 결과이다. 즉 빈곤한 삶을 살아온 아동이 성인이 되어서도 그 후유증으로 빈곤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한 성인에 비하여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2]이 빈곤이 아동의 현재의 삶과 성인기의 삶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빈곤의 단·장기 영향 또는 후유증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또한 아동빈곤의 영향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다. 이러한 빈곤의 영향은 복합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와 범위가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빈곤의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즉, 빈곤의 영향은 비균질적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빈곤을 경험한 시기가 어릴수록, 오랜 기간 빈곤가정에서 생활할수록, 극심한 빈곤을 경험할수록 아동빈곤의 결과는 더 강력해 질 수 있다. 최근에는 빈곤시기, 빈곤기간, 빈곤의 정도에 따른 비교를 통해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3]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빈곤의 영향으로 인한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과 함께 최근 가장 많이 진행되는 연구는 빈곤이 어떻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4]로 아동빈곤의 직·간접 영향을 다루고 있다. 더 나아가 빈곤의 사회적, 관계적 맥락에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빈곤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아동기 빈곤의 악영향을 우선 장·단기 결과적 측면과 빈곤의 속성(시기, 기간, 정도)요인에 따라 살펴본다. 그리고 빈곤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근거로 빈곤의 중재변인을 찾아 빈곤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Brooks-Gunn, J. & Duncan, G. J.,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1997. p.58; Btadley & Shiteside_Nansell, 1997; McLoyd,, V.C.,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hychologist, 53(2), 1998, 185~204; Duncan & Brooks-Gunn, "Cons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e Foundation, 1999 등.

3) 임세희,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34, 2007, pp55~78.; 구인회, 「빈곤의 동태적 분석-빈곤 지속기간과 그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57(2). 2005, pp351~374; 김광혁, 「아동기 빈곤이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빈곤 시기와 기간, 정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1, 2007, pp195~217 등.

4) Guo, G. & Harris, K. M., "The mechanisms mediating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s intellectual development." Demography, 37(4), 2000, 431~447; Yeung, Linver & Brooks-Gunn, " How money matters for young children's development: parental investment and family processes." Child Development, 73, 2002, 1861~1879; Linver M,. J. Brooks-Gunn, and D. Kohen, "Family processes as pathways from Income to Young children's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8(5), 2002, 719~734 등.

2. 아동기 빈곤의 악영향

1) 빈곤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발달 비교: 출발선의 불평등

'아동빈곤의 영향'에 대한 대표적 연구인 Brooks-Gunn과 Ducan(1997)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은 아동의 능력과 성취, 심지어 정서적 측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빈곤의 영향은 특히 결식경험과 문제행동에서 높게 나타났다. 빈곤아동의 배고픔 경험은 비빈곤 아동보다 거의 10배정도 높았으며, 학대와 방임의 경험도 6.8배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대 미혼모의 비율도 3배 이상 높았다. 빈곤아동은 학업성취 측면에서 비빈곤 아동보다 2배 이상의 부정적 결과를 보였다. 또한 신체건강에서는 발육부진과 같이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극단적인 데이터라 할 수 있는 아동기 사망률(1.5배)과 영아사망률(1.7배)도 비빈곤 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아동기 성장환경의 취약성이라 볼 수 있는 납중독의 비율도 3.5배로 유난히 높았다. Brook_Gun과 Duncan(1997)의 연구에서 보고하는 아동빈곤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와 통계치는 다음 <표 1>과 같다.

이처럼 빈곤은 인생의 시작,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시기인 아동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가정환경에 따라 아동간의 출발선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비빈곤 아동과 빈곤아동의 삶의 질, 복지의 수준은 지표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빈곤아동이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1. 미국 내 빈곤 아동과 비빈곤 아동의 복지 지표 비교

지표	빈곤아동의 퍼센트(%)	비빈곤 아동의 퍼센트(%)	빈곤아동/비빈곤 아동의 비율
신체건강결과			
- 매우 양호한 건강상태 보고율	37.4	55.2	0.7
- 양호하지 못하다고 건강상태 보고율	11.7	6.5	1.8
-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사고, 중독, 상해 경험율	11.8	14.7	0.8
- 만성 천식율	4.4	4.3	1.0
- 저체중아율	1.0	0.6	1.7
- 납중독율	16.3	4.7	3.5
- 영아사망률(100명당)	1.4	0.8	1.7
- 아동기(0~14세) 사망율	1.2	0.8	1.5
- 발육부진(2~17세 아동의 상위 15%)	10.0	5.0	2.0
- 질병경험 일수	5.3일	3.8일	1.4
- 아동 천명당 과거 단기 병원입원 일수	81.3stay	41.2stay	2.0

〈표 1〉 계속

지표	빈곤아동의 퍼센트(%)	비빈곤 아동의 퍼센트(%)	빈곤아동/비빈곤 아동의 비율
인지			
– 발달지연율	5.0	3.8	1.3
– 학습장애율	8.3	6.1	1.4
학업성취			
– 유급율	28.8	14.1	2.0
– 제적 또는 유예율	11.9	6.1	2.0
– 고등학교 중도 탈락율	21.0	9.6	2.2
정서 또는 행동			
– 지난 3개월간 지속적 정서 · 행동 문제를 보인 아동 비율	16.4	12.7	1.3
– 정서 · 행동 문제 치료 경험율	2.5	4.5	0.6
– 지난 3개월간 한가지 이상의 행동문제를 경험한 아동 비율	57.4	57.3	1.0
기타			
– 10대 미혼모 출산율	11.0	3.6	3.1
– 청년실업율	15.9	8.3	1.9
– 일년에 한번 이상 배고픔 경험(결식)율	15.9	1.6	9.9
– 아동학대와 방임율	5.4	0.8	6.8
– 폭력범죄율	5.4	2.6	2.1
– 지역사회의 외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비율	19.5	8.7	2.2

주: 각각의 지표별 통계치의 출처는 원자료를 참고할 것.
자료: Brooks-Gunn, J. & Duncan, G. J.,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1997. p.58.

2) 빈곤 아동의 성인기의 삶: 빈곤의 악순환

빈곤은 아동에게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빈곤은 아동기 삶의 차이를 만든다. 즉, 출발선을 다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출발선의 차이는 다시 성인기가 되어서도 삶의 차이를 만들어 준다. 빈곤이 세습된다는 것은 빈곤가정에서 성장한 아동, 즉 아동기 빈곤이 다시 성인기 빈곤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아동기 빈곤 경험이 만들어낸 낮은 학업성취 및 학교실패, 신체건강상태 저하 및 질병, 높은 문제행동 및 사회부적응은 성인기의 생산성 및 노동능력을 저하시킨다. 즉,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기회의 박탈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이러한 기회박탈이 성인기에 후유증으로 남는 것이다.

또한 빈곤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빈곤문화는 아동에게 빈곤에 대한 경각심보다는 빈곤환경에 대한 익숙함을 학습시켜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빈곤에 처한 부모나 가족이 공공부조에 의존하게 될 경우, 아동에게 좋지 않은 생활습관이나 의존성을 세습시켜 결과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다. 만성적인 복지의존성은 빈곤과 관련성이 높다.

정리하면, 아동기 빈곤은 발달 및 기회의 박탈을 초래하고 이러한 기회 박탈은 성인기 과업과 결과물에까지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한다.

3) 빈곤 경험 시기(timing)와 지속성(duration)에 따른 영향

빈곤이 아동발달 나아가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당연시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러한 빈곤의 영향은 복합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인해 그 영향이 미치는 정도와 범위가 단순하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한 상태에서 빈곤의 영향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즉, 빈곤시기, 빈곤기간, 빈곤의 정도에 따른 비교를 통해 아동기 빈곤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동이 빈곤을 경험한 시기와 기간에 따라 빈곤의 영향은 균질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빈곤경험의 시기가 이를수록, 빈곤경험이 장기화될수록 그 영향이 더 부정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른 시기의 빈곤경험은 장기빈곤일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즉, 빈곤시기와 빈곤기간은 관련성이 높다.

장기빈곤이 단기빈곤보다 부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은 빈곤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장기빈곤이 발달의 결정적 시기부터 지속되었을 높은 가능성이 동시적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저체중아 미숙아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의 분석을 통해 빈곤기간의 영향을 분석한 Dauncan과 동료들의 연구[5]는 아동이 단기적 빈곤보다 장기적인 빈곤을 경험할 경우, 인지발달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Koreman의 연구[6] 역시 장기 빈곤은 일시적인 빈곤에 비해 아동의 인지발달과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보고했다.

빈곤의 시기와 관련해서 아동이 빈곤을 경험하는 시기가 이를수록 아동의 학구적 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보고된다. 또한 Brooks-Gun과 Duncan은 아동기 초기에 경험하는 빈곤이 아동기 후기에 경험하는 빈곤보다 학구적 성취에 더 부정적이라고 보고했다.

정리하면, 단기간의 빈곤보다 연속적인 장기빈곤을 경험할수록, 또는 이른 아동기에 빈곤을 경험할수록 아동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5) Duncan, Brooks-Gun & Klebanov, "Economic Deprivation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5, 1994, pp296~318.
6) Korenman, Miller & Sjaastad, "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I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LSY. Institute for Research on Poverty Discussion Paper, 1995, pp1044~941.

3. 아동빈곤의 영향 경로

빈곤이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과거 연구에서도 논의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빈곤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면서 빈곤의 영향을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물론 직·간접 영향을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빈곤의 영향을 직·간접 영향이라는 직선적 관계로 설명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빈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빈곤은 상당히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실제로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구조, 이웃 환경 등의 통제변수를 넣자 소득만을 변수로 하였을 때 보다 빈곤이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다[7].

빈곤이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 이론은 인적자본투자이론 혹은 투자이론과 가족과정 모델이다. 두 이론은 주로 가족 내 사회적 자본과 가족과정에 중점을 두어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과정분석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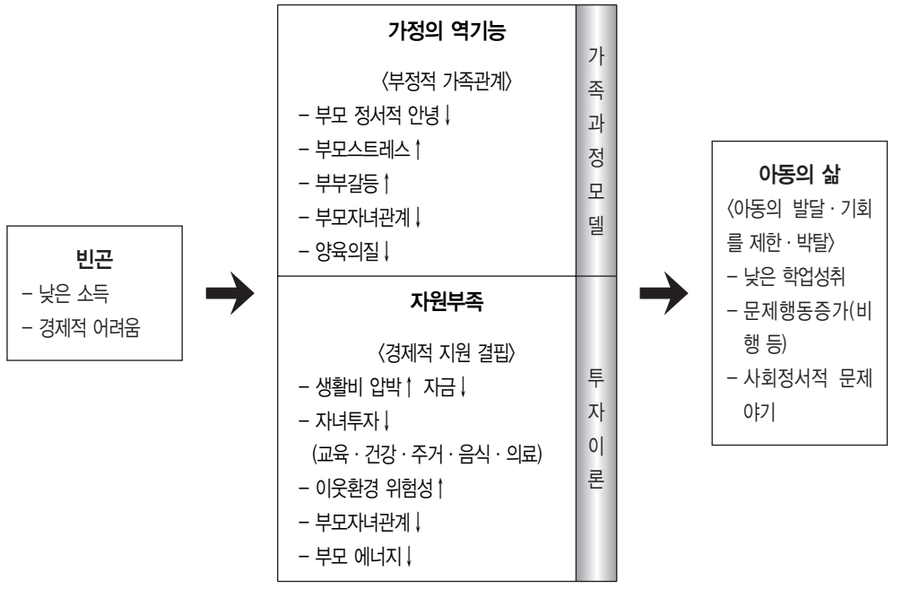
아동발달에 대한 빈곤의 영향경로를 설명하는 하나의 관점은 아동에 대한 가족의 투자능력을 강조하는 인적자본투자이론(human capital investment theory)이다. 이 관점은 아동의 인적 자본형성에 기여하는 물질적 재화, 경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아동의 발달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여 부모의 경제적 지원의 결핍은 아동의 발달 기회를 제한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부모는 아동의 인적 자본 향상을 위해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며, 이러한 투자는 주로 교육, 건강, 주거, 음식 등의 형태로 아동의 미래 기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즉, 빈곤한 부모는 생계를 위해 자원의 대부분을 소비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간, 자본, 에너지를 갖지 못한다. 이러한 투자자원의 부족은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준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는 또 다른 관점인 가족과정 모델(family pocess model)에서는 특히 아동의 삶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과 주양육자인 부모에 초점을 맞추어 빈곤의 영향을 분석한다. 빈곤이 부모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아동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가질 부모의 능력을 감소시킨다고 말한다. 결국 이러한 부모의 능력감소는 아동에 대한 좋지 않은 양육을 유발시키며, 아동에 대한 교육적, 사회적 기회를 제한한다고 보고한다.[9]

가족과정모델은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부갈등, 양육태도나 훈육 등의 변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예컨대 '빈곤이나 경제적 어려움'은 양육자인 '부모의 스트레스'나 '부부간의 갈등'을 야기하게 되며 이로 인해 부모는 '비일관적이고 혹독한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빈곤가정 부모의 잘못된 양육행동은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10]. 낮은 소득의 원인인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이 부모와 자녀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이로 인해 청소년의 정서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연구들은 이러한 가족과정 모델을 지지하고 있다[11].

정리하면 인적자본투자이론이 낮은 소득과 그것으로 인한 아동이 가용할 자원의 부족을 강조하고 있다면, 가족과정모델에서는 가정의 역기능과 주양육자의 양육태도를 주요 경로변수로 지적한다.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경로 즉 메커니즘을 가족과정모델과 투자이론을 바탕으로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아동빈곤의 영향경로



7) McLoyd, Vonne C.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 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1990; 임세희, 「장기빈곤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34, 2007 재인용.

8) Becker, G. S., and N. Tomes 'Human Capital and the rise and fall of famili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4(3), 1986.

9) McLoyd, V. "Socioeconomic disadvanta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hychologist, 53(2), 1998, 185-204; Conger, R. D., K. J. Conger, and G. Elder.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pp 288-310,. In Consquence of Growing Up Poor. Edited by G. J. Duncan and J. Brooks_gunn.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7.

10)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8(2), 2006, pp303~330. 재인용.

11) Brooks-Gunn, J. & Duncan, G. J.,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2), 1997. pp54~71. 재인용.

4. 아동빈곤의 영향을 최소화를 위한 과제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빈곤의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예측하여, 빈곤의 결과를 제거 및 최소화하거나 빈곤의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현재 빈곤 환경에 처해 있는 아동에게 더욱 중요하다. 특히 빈곤의 영향은 세습되므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빈곤의 영향을 줄이고, 빈곤이 아동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역사회 및 정부가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빈곤으로 인한 결과가 아동의 학습부진이라면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업증진 프로그램의 제공은 빈곤의 영향을 감해줄 것이다.

본 고에서는 아동빈곤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로 빈곤속성에 따른 차별된 접근과 빈곤에 대한 조기개입 및 빈곤가정의 부모의 심리 · 정서 지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과제들의 실천의 기반이 되는 지역사회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1) 아동기 특성에 따른 차별된 접근

사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빈곤아동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단지 빈곤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아동기 빈곤의 문제는 빈곤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으며, 소득보장과 노동시장 정책 등은 탈빈곤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생계보조 또는 소득보장에 집중된 정책만으로 아동이 빈곤의 영향,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렵다. 이는 아동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취약성 때문이다. 단적으로 노인빈곤과 아동빈곤에 대한 접근방식은 동일할 수 없다. 따라서 아동빈곤은 성인기 빈곤과는 다른 차별된 접근이 필요하다.

아동기 빈곤경험은 아동에게 거대한 위험이며 이 위험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과 달리 회복되는 속도가 느리며,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의 경우 단순히 빈곤에서 벗어났다고 하여 빈곤의 영향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앞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 무엇보다 아동빈곤의 세습화와 장기화를 벗어날 수 있도록 빈곤아동의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빈곤아동의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을 지지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은 필수적이다.

2) 빈곤아동에 대한 조기개입 및 투자

아동기 초기에는 아동의 인지적 및 사회 · 정서적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며, 부모 및 가정학습환경과 아동양육 환경, 보건시스템으로부터의 투입에 아주 민감하게(sensitive) 반응한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개입 및 투자도 아동기 초기에 이루어질수록 그 효과 및 효율성이 아주 높아진다. 즉, 빈곤문제에 조기개입 할수록 빈곤의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중재요인들의 작용으로 빈곤의 영향에서 보호막을 만들어 줄 수있다.

Heckman 과 Lochner(2000)는 연령대별 인적자본 투자 전략의 효과성을 비교하면서 어린시기, 특히 학령전기의 조기 개입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이론적 근거로는 첫째, 어린 시기에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 어린시기에 시작하였기 때문에 가장 길어 전체 수익률이 높으며, 둘째, 능력은 능력을 낳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에 따라 어린시기에 보강해준 인적자본은 그것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인적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자생적으로 생겨 인적자본 축적에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12].

빈곤의 영향경로를 설명하는 인적자본투자 이론에서는 빈곤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주요요인으로 투자 및 자원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빈곤아동에 대한 지원 및 투자는 빈곤아동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켜 주는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조기에 이루어질수록 최대의 효과를 거둘 것이다.

3) 빈곤가정의 부모의 심리 · 정서 지원

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경로에서 보면 가정환경과 부모의 심리 변인이 중요한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 빈곤은 아동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의 정서상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그 어떤 시기보다 주양육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아동은 이러한 부모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간접적 영향일 수 있으나, 부모의 심리와 정서는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따라서 빈곤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정환경에 동시에 개입하는 서비스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정환경 속에서 적절한 부모역할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빈곤가정의 부모는 장시간의 노동, 스트레스, 양육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인다. 특히 빈곤한 부모의 스트레스, 우울 등의 사회정서문제는 그대로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모의 사회정서 문제들은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13].

따라서 빈곤아동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빈곤아동뿐 아니라 빈곤가정의 부모 또는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이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빈곤아동의 문제를 단순히 아동의 문제로 보는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의 부모와 가정환경으로 확대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빈곤아동지원에서 빈곤가정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의 연령단계별 부모-자녀관계의 발달을 지지해 주는 프로그램이 세분화되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빈곤아동의 부모 및 가정에 대한 통합적 지지 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스타트 사업이 있다[14]. 미국의 헤드스타트[15], 영국의 슈어

12) 이봉주, 『인적자본과 불평등,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6. 4.
13) 허남순 외, 『빈곤아동과 삶의 질』, 학지사, 2007.
14) 스타트 사업은 아동빈곤의 조기개입 프로그램으로써도 모범적 사례이기도 하나, 본 고에서는 통합적 서비스의 관점에서 스타트 사업을 소개하였다.

스타트[16], 캐나다의 페어스타트[17], 호주의 베스트 스타트[18]는 빈곤아동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스타트 사업은 아동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희망스타트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스타트 사업은 아직 체계화 · 조직화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지만, 빈곤아동지원정책과 실천측면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현재 확대되는 스타트 사업이 정착되면 빈곤아동과 가정의 든든한 보호 장치로서 역할하게 될 것이다.

5. 결론

10명의 자녀를 둔 흥부네 가정은 저출산 시대에서 모범적인 가정이다. 그러나 많은 가구원수와 6세미만의 아동이 존재하는 흥부네 집은 전형적인 빈곤가구이며, 자녀들도 전형적인 빈곤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다. 만약 제비가 흥부의 집에 박씨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면, 가난한 흥부의 자녀는 잘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제비가 가져다 준 박씨로 많은 금은보화를 얻은 흥부네 자녀들은 빈곤에서 벗어난 후에 잘 성장하였을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흥부네 가정은 존재한다. 빈곤으로 신체건강, 인지적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흥부네 아이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동화에서처럼 금은보화가 열리는 박씨를 가져다주는 제비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비는 단지 금은보화를 가져다주는 역할만 했을 뿐, 아동기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제거해주는 박씨는 가져다주지 않았다.

현대사회에서 제비는 좀더 다양한 박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박씨를 적절하게 가져다주어야 한다. 금은보화를 통한 생계지원뿐만 아니라, 아동에게 초점을 맞추어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차단해 주거나 최소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되어야 한다. 이제는 조기개입, 사회정서 지원, 가족관계 향상, 부모지원 등 다양한 박씨를 가진 제비의 역할을 지역사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지원하고 실천해야 한다. 보건복지

15) 미국의 헤드스타트(Head Start)는 취학전 3~5세의 빈곤아동에게 언어, 보건, 정서 등 다방면에 걸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 빈곤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취지로 1964년 시작된 아동 보육 프로그램이다. 1994년부터는 0~2세 영아에게까지 확장되어 '조기 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2006년 약 91만명의 아동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지원도 약 6,786백만 달러의 규모이다.

16) 영국의 슈어스타트(Sure Start)는 아동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빈곤층 아동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부모에게도 일자리를 갖고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보육 · 보건 · 교육 · 취업 서비스를 아동과 부모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대상은 영국내 하위 20%계층에 살고 있는 지역의 0~14세 이하 아동이며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7) 캐나다의 페어스타트(Fair Start)는 18개월부터 취학전까지의 아동에게 시력, 청력, 사회성, 언어능력, 체력, 손놀림 등 여섯가지 검사를 무료로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아동의 문제를 빨리 발견 · 치료해주어 아동에게 공정한(Fair)출발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1996년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18) 호주의 베스트스타트(Best Start)는 2001년 시작되어 0~7세까지 빅토리아주 거주 아동에 대해서 보건, 발달, 인지 등에 있어서 발달단계에 적합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득, 인종, 지역 등에 따른 영유아의 발달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부모, 가족,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